

특강 1

# 꿈넘어꿈

고도원(아침편지 원장)

제57차 국공립대학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 꿈너머꿈

고도원(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

우리가 살다 보면 의미 있는 날이 하루, 이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01년 8월 1일입니다. 벌써 한 7년 됐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어요. 2001년 8월 1일은 ‘고도원의 아침편지’라는 것이 처음 시작된 날입니다. ‘고도원의 아침편지’가 뭐냐, 제가 평생 이것저것 읽으면서 밑줄 그어 놓은 것, 산더미 같은 독서 카드, 그것을 개인 컴퓨터가 생기면서 DB화 하고, 그 가운데 좋은 구절 하나 골라서 하루의 시작에 읽으면 그 사람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꿈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더 한걸음 나아갈 수 있고, 그 짧은 글귀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지도 몰라요.

2001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문명의 새 흐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메일 주소라는 것이 생겨나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제 친구 몇 사람에게 보내기 시작했던 것이 ‘고도원의 아침편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마음의 비타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밑줄 그은 글귀하고, 이 글귀는 어디에 있다는 제목을 소개하고, 그 책의 저자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저의 단상을 적어서 1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짧게, 이메일 화면 구성을 상큼하게 해서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내놓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제 인생에 역전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에도 제목을 달리 해서 제 친구 몇 사람에게 시험용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했습니다. 7년 전에 제 친구 몇 사람에게 시험적으로 보내던 것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커져 자라났습니다. 제가 이걸 행복 바이러스라고 불렀습니다, 전염성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이 편지를 받으신 분이, 기록수치를 보니까 200만여 명 되고, 블로그까지 합치면 하루에 3백만, 5백만의 대한민국 국민

이 아침편지를 접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더 절절한 마음으로 아침편지를 기다리고 계세요. 짧은 글에서 두고 온 산하, 고국에 있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눈물 젖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고 그러십니다. 숫자만 놀라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편지 200만 통이 획 날아가요. 그러면 어떤 분은 답장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물론 7년 동안 한번도 안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제일 간단한 답장은 다섯 글자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오는데요, 바로 ‘고맙습니다’입니다. 그런데 긴 글은 장편소설입니다. 가끔 그런 편지를 받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하루에 몇 백 통, 몇 천 통, 몇 만 통씩 들어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계기가 있습니다. 큰 뜻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 우연히 소박하게 시작해요. 그러나 어떤 일이 훌륭하게 된 상태에서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의 씨앗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편지를 우연히 시작했지만, 여기서 필연의 씨앗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필연의 씨앗은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골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 계세요. 제가 지금 5학년 7반입니다. 이 나이에 어머니, 엄마 하면 금방 눈이 시큰해져요. 생전에 어머니 고생하시던 모습이 아들의 눈에 섬광처럼 보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겨놓고 가신 아련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고구마 이삭을 चु는 모습입니다. 넓은 고구마 밭에서 어머니가 호미 들고, 포대자루 들고, 그래도 명색이 목사의 아내니까 사람한테 안 들키려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가시는 거예요. 호미로 땅을 파면 깨진 고구마가 나옵니다. 주인이 야무진 밭은 아무리 파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덩굴에 얽혀서 여러 개가 나오면 얼굴에 복사꽃이 피는 거예요. 그렇게 고구마를 캐오면 깎두기보다 조금 크게 썬 다음 잘 찢어서 찢 다음 콩보리밥에 넣고 섞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도시락 안 싸가지고 다녔어요. 도시락 뚜껑을 딱 열면 콩보리밥까지는 팬찮은데 군데군데 고구마가 박혀있는 거예요. 그게 싫었습니다. 신물 나게 먹었습니다. 제가 30대가 되서도 고구마가 질려서 안 먹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예전에 부부싸움을 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딪히게 되어있어요. 부부싸움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책 때문에 싸웠어요. 너희 아버지 돈 드리면 안 되겠다, 손에 돈을 쥐어 드릴 수가 없다며 말씀하셨어요. 돈을

드리고 읍내 가서 뭐 사오라고 하시면 책만 사가지고 오시니까 어머니는 속상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명색이 목사의 아내로써, 목사님에게 책이 필요하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돈이 너무 궁하니까, 7남매 키우기 정말 어려우니까요.

저희 부모님들 정말 선한 싸움, 좋은 싸움 잘 마치시고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당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에게 엄청난 양의 책을 물려주고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물려주신 책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아버님의 영혼이고, 눈물이고 모든 것이예요. 그 가난한 목사님이 당대 최고의 장서를 자랑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책을 물려받고 제 아내와 이사할 때마다 여러 번 다봤습니다. 그 책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절망의 시간에 아버님이 물려주신 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님이 그어 놓으신 밑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밑줄을 읽는 순간 전율이 왔어요. 당신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무심코 그어 놓은 밑줄에서 살아있는 숨결을 느꼈습니다. 하늘에서 아버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이 구절은 아버님이 저에게 남기신 유일한 씨앗입니다. “아들아, 절망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제 인생의 최고의 모토가 되게 한 이 글귀를 아버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아버님이 이 시대의 인터넷, 이메일 꿈도 못 꾸고 가셨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목회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를 통해 남은 책과 그 안에 남겨 둔 밑줄이 온전히 남아서 그 아들 대에 인터넷에서 상을 받게 하고, 아침편지를 쓰게 하고, 이게 계속 자라나서 200만의 마음의 공동체인 오늘을 있게 한 우연이 아닌 필연의 씨앗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약간의 재산, 약간의 땅, 이런 것들도 필연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책이었습니다. 이도 저도 없으면 그보다 더 위대한 필연의 씨앗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그 재료를 매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입술에 담을 수 있는 말 한마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친구에게, 자기 배우자와 자녀에게 가슴에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위대한 불덩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계속 하는가, 이 질문도 매우 철학적입니다.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마음의 비타민이라는 제목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일을 왜 하나,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제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꿈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꿈 넘어 꿈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보다 큰 기쁨과 보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대답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별명이 꿈쟁이입니다. 2001년 8월 1일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꿈이 생겨났고, 이게 전부 이루어지고 자라나고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꿈을 글로 적어놓는 것, 누구에게 말해놓는 것, 이것이 꿈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말하십시오,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꿈을 말하게 하세요. 말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꿈이 뭔지 묻는 것입니다. 첫날은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계속 물어보면 언젠가 말을 해요. 꿈이 뭔지 말하게 하고, 말할 때마다 박수를 쳐주세요. 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인 거예요. 이루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기를 기르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북극성까지 이르게 하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공부해라, 책 읽어라 하면 안 합니다. 꿈을 말하게 하고 지켜보다가 책에 손을 대는 순간에 칭찬해주세요. 이렇게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아주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꿈은 말하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즉각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말하고 적어놔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물론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렸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기다렸다가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없습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으신 할아버지가 자식과 손자, 손녀들을 모아놓고 본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꿈을 말하는 순간 그 꿈은 남겨져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기다렸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후대에 이루어지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꿈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꿈인가. 좋은 꿈은 한 사람의 꿈이 한 사람의 꿈으로 머물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의 꿈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이 한 사람의 행복에 머물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의 꿈으로 확장되는 꿈이 좋은 꿈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꿈이 너무 자라면 히틀러의 꿈이 됩니다. 그는 꿈을 이루고 성공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꿈이 꿈 너머 꿈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 새로운 꿈너머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아침편지를 쓴다고 할 수 있다.

'꿈너머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꿈 너머 꿈'은 꿈을 갖되, 그 꿈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더 생각하는 비전과 같은 것입니다. 단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룬 꿈을 징검다리 삼아 그 꿈을 이룬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머리에 그리며 처음부터 방향을 잡아가는 것, 이것이 아침편지에서 지향하는 '꿈너머꿈'의 요체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으며, 그 꿈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 바로 그 '무엇'을 생각하며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꿈너머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백만장자를 꿈꿨으면 백만장자가 된 다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대통령을 꿈꾸었으면, 또 의사를, 선생님을, 화가를, 작가를, 축구 선수를, 발레리나를 꿈꾸었으면 그 꿈을 이룬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함께 꿈꿔가는 것, 그것이 꿈너머꿈인 것이지요.

백만장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꿈너머꿈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꿈너머꿈'은 자기 행복에만 머무는 이기성을 떠나 최소한의 '이타성'을 띄어야 가능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생각해야 가능한 것이며, 그 첫걸음이 바로 '나눔'입니다.

꿈 너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꿈 너머 꿈을 심을 수 있고, 반드시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